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오인철)는 최근 라데나 컨트리 클럽 회의실에서 임원연석회의를 열고, 평창올림픽 입장권 단체 구매 등이 포함된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지역건설업계 올림픽 붐업 앞장선다

대한건설협 도회 입장권 단체 구매 등 추진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오인철)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8일 도회에 따르면 최근 라데나 컨트리 클럽 회의실에서 열린 임원연석회의에서 평창올림픽 입장권 단체 구매, 국개 대표 경기관람과 응원을 위한 서포터즈 모집 사업을 올 하반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진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지역건설업계도 한마음으로 나서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소외계층 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사랑나눔 회원친선 골프대회 개최, 회원사대

표들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최고경영자 연수사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는 정동기 (주)동진건설 대표이사가 신임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정동기 위원장은 “건설업계 회원사들의 윤리의식 확립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철 도회장은 “1차 판매기간에 팔린 올림픽 티켓은 총 판매목표량의 21%에 불과해 붐업 조성이 절실한 상황인데, 지역경제계에서는 건설업계가 솔선수범해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정동기씨 건설협회 도회 윤리위원장 임명

정동기(사진) 원주 동진건설 대표가 대한건설협회 도회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8일 임원회의를 거쳐 정동기 원주 동진건설 대표를 도회 윤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취임



소감으로 “회원들의 도덕적 권위를 마련해 존중받을 수 있는 청렴한 업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 출신으로 대성고와 강원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대한육상연맹 도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도운